

▶ 달러/원 주간 전망

• 美 물가지표 전후한 변동성 경계... 1300원대 상승 여력 주목

서울, 8월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물가지표를 소화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주말에 발표된 미국 7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는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음에도 월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 탓에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일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금주 중에 나올 물가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또 한번 더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비 3%로 2년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7월에는 이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가 유지되고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는 7월 CPI는 3.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비 4.7%로 6월 4.8%보다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봤다.

최근 달러와 금리가 양방향 변동성을 키우면서도 하단이 보다 지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물가지표를 전후해 금리와 달러가 단기 방향성을 타진할 가능성도 열어둬야할 듯하다.

한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된다.

달러/원 환율은 상승 변동성을 키우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간의 레인지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다. 다만, 환율이 상황 따라 1,300원대에서 상승 탄성을 붙여간다면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번 주 환율 움직임에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0-1,320원이다.

한편, 주 초에는 중국 수출입과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 위안 변동성이 커질 리스크를 감안해야할 듯하다. 중국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심리를 개선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만큼 장중 원화 변동성을 자극하는 재료인 위안 움직임에 대한 경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목할 지표로는 6월 국제수지(잠정)와 7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달 10일 기준 수출과 무역수지 잠정치들 통해 국내 펀더멘털 여건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7일(월)

- ⊙ KDI: KDI 경제동향(2023. 8) (12:00)

8월8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 (08:00)

8월9일(수)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 통계청: 2023년 7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2023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 (12:00)

8월10일(목)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 (10:00)
- ⊙ KDI: KDI 경제전망 수정(2023. 8) (12:00)
- ⊙ 한국은행: 2023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감독원: 2023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8월11일(금)

- ⊙ 관세청: 8.1~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한국은행: 2023년 6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0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8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7월	3.200T	3.193T
8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7월		1,247.2B
8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6월		-0.4
8월8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6월		1.1
8월8일	17:30	유로존	셴틱스지수	8월	-24.3	-22.5
8월8일	23:00	미국	고용추이	7월		114.31
8월8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6월	13.00B	7.24B
8월8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6월	-4.1%	-4.0%
8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7월		3.2%
8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6월	1,395.0B	1,862.4B
8월8일		중국	수출 YY	7월		-12.4%
8월8일		중국	수입 YY	7월		-6.8%
8월8일	19: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7월		91.00
8월8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6월	-0.3%	-0.3%
8월8일	23:00	미국	도매판매 MM	6월		-0.2%
8월9일	10:30	중국	PPI YY	7월		-5.4%
8월9일	10:30	중국	CPI YY	7월		0.0%
8월9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4일 주간		200.7
8월10일	08:50	일본	기업가격상표지수 MM	7월	0.2%	-0.2%
8월10일	21:30	미국	CPI MM, SA	7월	0.2%	0.2%
8월1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31일 주간	230k	227k
8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7월		11.3%
8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7월		3,050.0B
8월10-17일		중국	FDI (YTD)	7월		-2.70%
8월11일	03:00	미국	연방예산	7월		-228.00B
8월11일	21:30	미국	PPI MM	7월	0.2%	0.1%
8월11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8월	71.0	71.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7일(월)

- ⊙ 일본은행 7월27-28일 정책회의 주요 의견 요약 (오전 8시5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연준이 듣는다 행사 개·폐회사 (오후 9시30분)

8월8일(화)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비즈니스 저널 행사에서 연설 (오후 9시15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라우던카운티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연설 (오후 9시30분)

8월10일(목)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주최 웨비나 참석 (11일 오전 4시)

8월11일(금)

- ⊙ 휴장국가: 일본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미국 CPI

미국 경제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6월 인플레이션율은 3%로 2년여 만의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아직 미국 경제 연착륙을 장담하기엔 이르다.

연방준비제도가 계속 경제지표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매우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율이 낮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와 근원 CPI 전년동월비 상승률을 각각 3.3%와 4.7%로 추정했다. 전월비 상승률은 각각 0.2%로 추정됐다.

⊙ 중국 수출입 및 물가

중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세 속에 정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돼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양 조치들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까지의 조치들이 너무 규모가 작거나 모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시작된 후 부양책 기대감에 29%까지 급등했던 홍콩 부동산업종지수는 이후 구체적 조치 부재로 인한 실망감에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반납했다.

모간스탠리는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랠리는 완벽한 매도 기회였다면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투자자들은 8일 발표될 중국 수출입과 9일 물가 지표가 다시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 신흥국 금리 결정

최근 브라질과 칠레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멕시코, 페루, 인도 등 다른 신흥국들의 금리 결정도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는 10일 기준금리를 11.2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날 정책회의를 여는 페루도 연내 금리 인하가 예상되나 이날은 금리를 7.75%로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인도도 1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6.50%로 동결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 GDP

오는 11일에는 영국의 6월 GDP가 발표될 예정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영국의 6월 GDP는 전월비 0.2% 증가해 5월(-0.1%)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전년 동월비로는 0.5% 증가해 5월(-0.4%)보다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또 3개월간(4~6월) 성장률은 0.1%로 추정됐다. 3~5월은 보험세를 기록한 바 있다.

⊙ 허리케인과 보험사 실적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세계 주요 보험사들의 실적이 발표된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 민헨리는 텍사스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규모 상각으로부터 회복되면서 10일 순이익 60% 증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헨리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은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와 취리히보험, 하노버리도 다가오는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허리케인이나 다른 자연재해와 관련 이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달러/원 월간 전망 ①) - 변동성 경계에도 박스권 우세... 잭슨홀 미팅 주목

서울, 8월1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한 달러/원 환율은 8월 물가 반등 가능성, 주요 경제지표 등을 살피며 상·하단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54-1,305원으로 제시됐다.

최근 미국 물가지표 둔화 흐름 속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7월을 끝으로 마무리되리라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지만 다른 국가 대비 견조한 미국 경제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 대다수는 달러 약세가 쉽사리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글로벌 폭염 등에 유가 및 농산물 가격이 자극되고 기저효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경계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내 수급도 양방향으로 팽팽하게 유입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달러/원 향방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다음 9월 연준 회의까지 약 8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 사이 발표되는 다수의 경제지표와 8월 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부장	1264	130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250	132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255	1290
DGB대구은행	이용주 차장	1260	1310
IBK기업은행	임기묵 차장	1260	1305
KDB산업은행	류흥 대리	1250	1300
NH농협은행	최종화 차장	1240	1310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1250	130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265	1310
DB금융투자	문흥철 파트장	1254	1310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240	1310
SK증권	안영진 연구원	1260	1295
평균		1254	1305

((Yena.Park@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일부 은행들에 달러 매입 줄이거나 미루라고 요청 - 소식통들

상하이, 8월2일 (로이터) -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 절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일부 시중은행들에게 달러 매입을 줄이거나 연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한 소식통은 당국이 은행들에게 "최근 위안 절하"를 이유로 달러 매입을 연기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켄 청 미즈호은행 전략가는 이같은 창구규제(window guidance)는 "중국인민은행이 위안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안 가치는CNY=CFXS는 지난달 8개월 만의 최저치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달러 대비 3.6% 절하됐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그래프/분석) - 주요 중앙은행 금리 추가 인상... 긴축 종료 가시화

런던, 8월4일 (로이터) -

물가 상승 압력이 마침내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일부 주요국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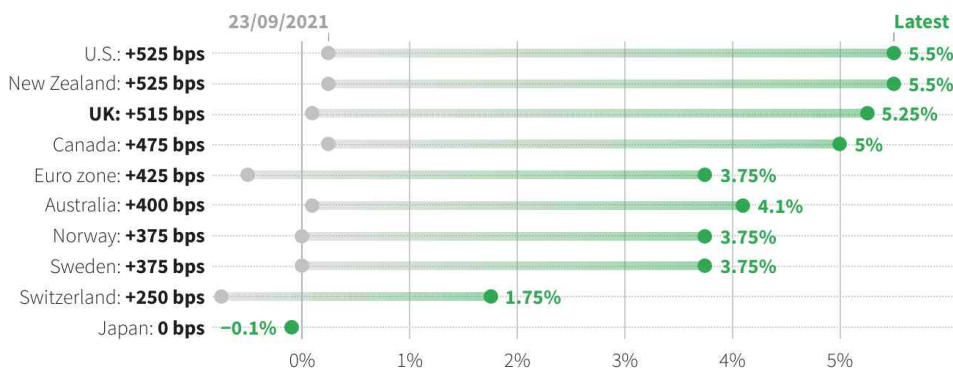
너무 일찍 인상을 중단하면 금융 여건이 빠르게 완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늦게 중단하면 신용 경색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앞으로의 결정이 중요하다.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일본을 제외한 선진 9개국은 총 3865bp를 인상했다.

다음은 금리 인상폭이 큰 순서대로 각 국가별 현재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The race to raise rates

Change in policy rates by central banks overseeing the 10 most traded currencies since the start of the interest rate tightening cycle in September 2021.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ug. 3, 2023 | By Sumanta 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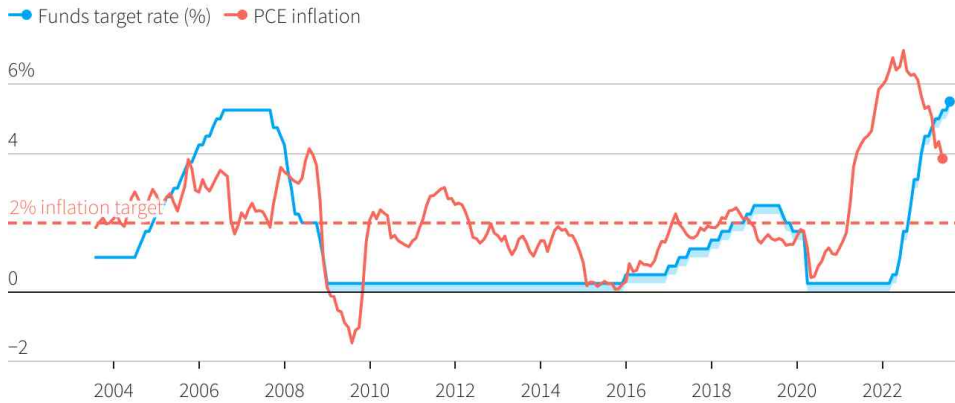
1. 미국

연준은 7월 기준금리를 5.25-5.50%로 25bp 인상했다. 지난 12번의 회의 중 11번째 인상이었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머니마켓이 지난 번 인상이 마지막이었다는 추측을 반영하는 등 시장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Fed hikes and leaves door open to another in September

Fed raises policy rate to 5.25%-5.50% ran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By Vincent Flasseur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5월 금리를 14년 만의 최고치인 5.5%로 인상한 뒤 7월에는 동결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남은 기간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등 지난 번 인상으로 20개월간 지속돼 온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New Zealand central bank hits pause

New Zealand's central bank held the cash rate steady at 5.5% in July and signalled that rates would be on hold for some time, ending its most aggressive hiking cycle since 1999.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By Kripa Jaya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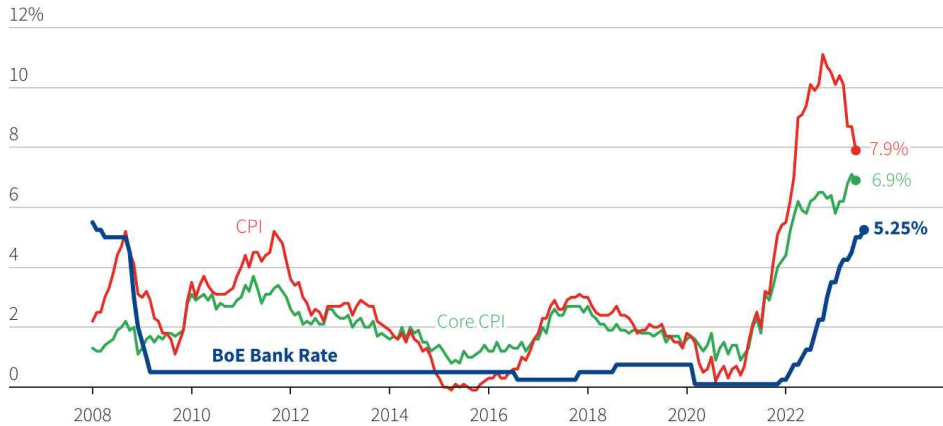
3. 영국

영란은행은 3일 기준금리를 15년 만의 최고치인 5.25%로 25bp 인상하고, 강한 인플레이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어 한동안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지난해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1.1%로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른 국가보다 더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7.9%로 예상보다 많이 둔화돼 영란은행이 3일 인상폭을 줄일 수 있었다.

BoE delivers a smaller 25 bps hike

The Bank of England raised its Bank Rate to 5.25%, the highest since Feb 2008. The 25 basis point hike was smaller than the 50bps hike on June 22, as inflation showed signs of cooling.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Aug. 3, 2023 | By Sumanta 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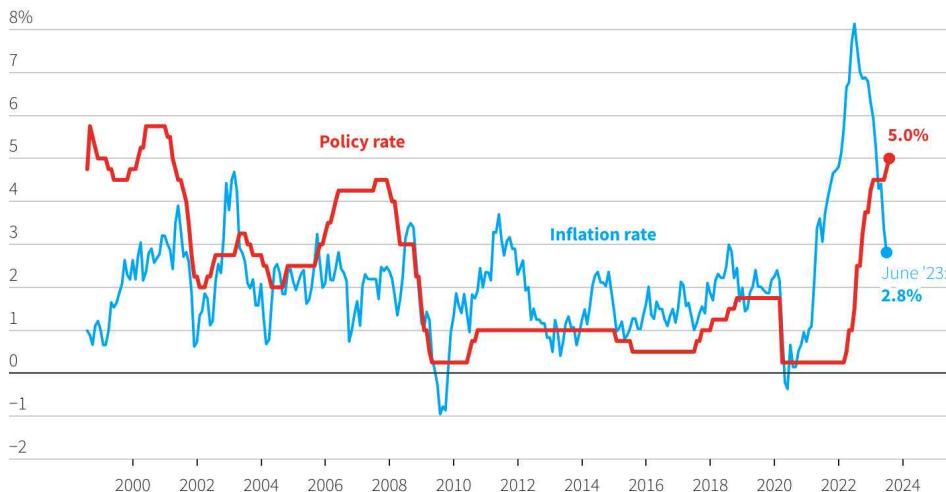
4.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7월12일 금리를 22년 만의 최고치인 5%로 25bp 인상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인상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율은 6월 2.8%로 둔화됐지만, 중앙은행은 2025년 중반까지 2% 목표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ank of Canada hikes key rate to 22-year high

The Bank of Canada raised its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to 5% at its July meeting.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By Sumanta Sen

5.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예금금리를 2000년 이후 최고인 3.75%로 25bp 인상했지만, 정책 성명에서 확실한 추가 인상 힌트를 제거해 9월 인상이 확실치 않음을 시사했다.

7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더 둔화된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종료를 검토하는 ECB에게 대체로 위안을 주는 신호다.

ECB hikes policy rate to historic high

The European Central Bank raised its policy rate by 25 bps to 3.75%, the ninth consecutive hike since the start of tightening cycl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Vincent Flasseur

6.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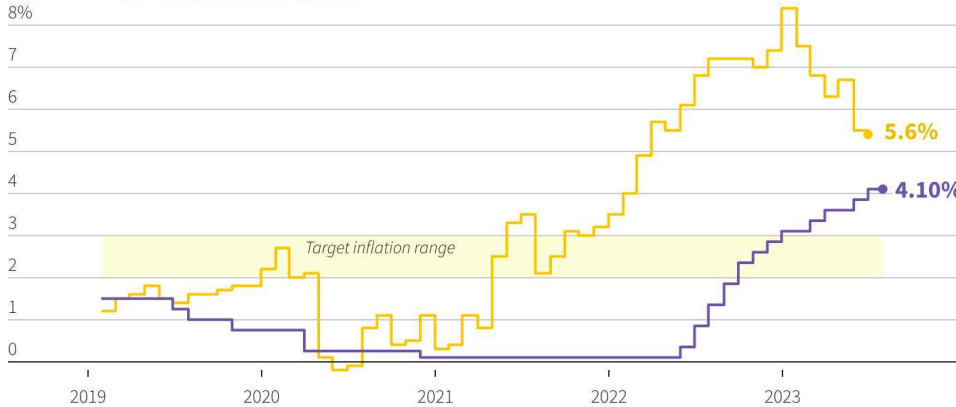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난 1일 기존의 인상이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4.1%로 동결했다. 그러나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BA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이 2024년 말 3.25% 부근으로 둔화되고 2025년 말 2-3% 목표 레인지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Australia's central bank holds interest rates steady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kept its cash rate at 4.10% saying it wanted more time to assess the impact of past hikes, but warned further tightening might be needed to bring inflation to heel.

RBA cash rate | Monthly inflation rate (Y/Y)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By Vincent Flasseur

7. 노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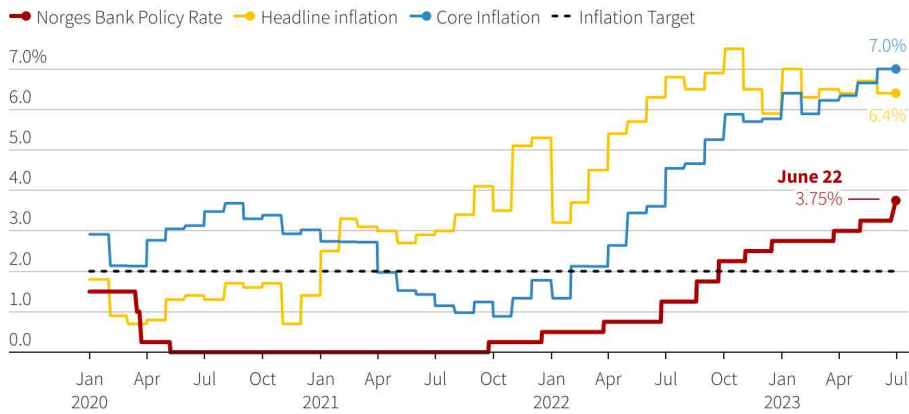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6월 7%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긴축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중앙은행은 6월 기준금리를 15년 만의 최고치인 3.75%로 예상보다 큰 폭인 50bp 인상했고, 8월17일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Norges Bank hikes rate by 50 bps

The central bank raised its key policy rate to 3.75% at the June 22 meeting in a bid to tackle stubbornly high inflation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By Vincent Flass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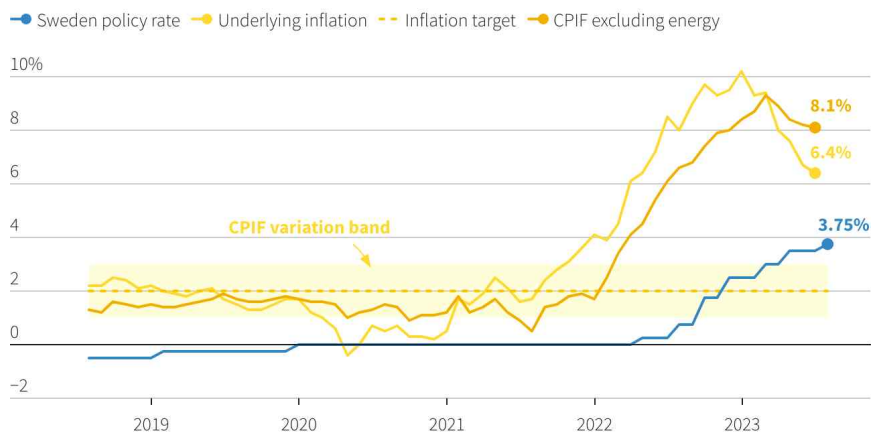
8.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은 주택 가격이 2022년 3월 이후 20%가 하락했음에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인플레이션율은 6.4%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다. 시장은 6월 25bp 인상에 이어 9월에도 4%로 25bp가 인상되리라고 전망한다.

Riksbank to hike at least one more time

Riksbank raises policy rate by 25 bp to 3.75%, sees at least one more rate hike this year.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By Vincent Flasseur

9. 스위스

3일 발표된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초 이후 최저치인 1.6%를 기록해, 중앙은행의 목표 레인지에 2개월 연속 부합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6월의 -0.75%에서 1.75%까지 끌어올렸고, 투자자들은 9월 추가 인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SNB raises interest rate for the 5th time

The Swiss National Bank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25 basis points as the central bank pressed ahead with its campaign to dampen stubborn inflation and left the door open for more tightening.

SNB policy rate | CPI (Y/Y)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7, 2023 | By Kripa Jaya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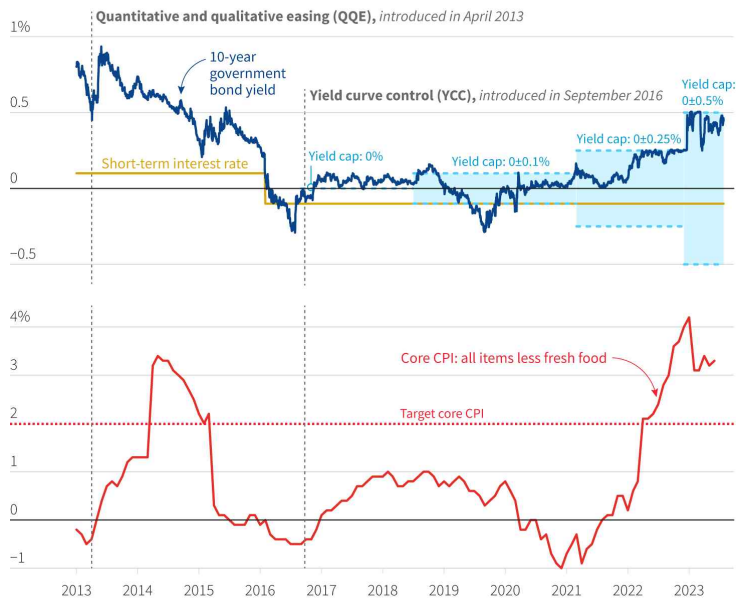
10. 일본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가장 도비시한 일본은행(BOJ)은 7월 단기금리 목표치를 -0.1%로 유지했으나,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 유연화를 단행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BOJ는 10년물 수익률의 암묵적 상한선을 0.5%로 유지했으나, 이것이 "확실한 한계"가 아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혀 1%까지 상승을 용인할 것임을 신호했다.

The BOJ's YCC faces a reckoning

The Bank of Japan has kept interest rates ultra-low to sustainably achieve its 2% inflation target. It has ruled out raising rates despite rising inflation and expects core consumer inflation to slow by October. But creeping inflation has put the BoJ's yield curve control (YCC) policy at test by pushing up bond yield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uly 28, 2023 | By Pasit Kongkunakornkul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 - 피치, 미국 신용등급 깜짝 강등... 전문가들 반응은?

8월2일 (로이터) -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장기 외화 표시 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재정 악화 전망과 정부의 높은 부채 부담을 등급 조정 이유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번 발표와 관련한 해외 전문가 반응이다.

◆ 마이클 오로크, 존스트레이딩 수석 시장 전략가

"금일 채권시장 움직임으로 볼 때 미국 국채 시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경제지표, ISM 부진 정도에 약세를 보였기에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 채권시장이 마치 누군가가 알고 있던 것처럼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에게 완전한 서프라이즈였다."

◆ 버나드 바움홀, 이코노믹아웃룩그룹 매니징 디렉터 및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전반적으로 정부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S&P가 비슷하게 강등했을 때도 수요는 여전히 강했다."

◆ 마이클 술먼, 런닝포인트매피탈어드바이저 최고 투자 책임자

"미국이 전반적으로 강할 것이기에 미국 국채시장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약간의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명성과 지위에 흠집이 났지만 솔직히 몇 달 전에 실제 경기를 치렀다. 이것이 몇 달 전부터 시장의 긴장감을 확인시켜 주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 안젤로 쿠르카파스, 에드워드존스 수석 투자 전략가

"매우 놀라운 타이밍이었다...이로 인해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11년에) 시장은 10% 후퇴했지만, 부채한도 'X-date' 시기에 가까울 때였다. 당시에는 'X-date'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더해졌고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훨씬 더 불안정했다."

◆ 키스 러너, 트루이스트어드바이저시서비스 공동 수석 투자 책임자

"예상치 못했던 일로, 시장 영향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시장은 나쁜 소식에 다소 취약한 시점에 있다."

◆ 에릭 위노그라드,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수석 이코노미스트

"누구도 미국이 부채 상환하지 못하리라는 전망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 장기 및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며 이번 강등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리라는 중대한 신호로 보지 않는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